

# 한국 전통춤의 공적 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의 데이터 설계 연구\*

김 윤 지\*\*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한국 전통춤과 공적 보호
- III. 시대별 춤 종목의 종합 조사 및 분류 체계
- IV. 종합조사 DB화의 단계 및 인덱스 데이터의 설계
- V. 나가며

**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 전통춤의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방안으로써 한국  
전통춤의 공적 영역 찾기와 설정에 의한 공적보호 체계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결과를 제시해 본다.

첫째, 공공재로 본 한국 전통춤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춤으로, 그 춤 속에는 수많은 예인들과 솔한 작업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완성도 높은 우리들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춤들의 공적보호 설정을 통해서 공적의 공동선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다가갈 수 있으며, 해당 춤과 관련된 국가적·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선순환적 기능을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B5A16076349) 임.

\*\* 金允志,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bluewave97@korea.ac.kr.  
투고일: 2023. 5. 31. 심사완료일: 2023. 6. 13.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279>

수행하고, 공개의 힘을 통한 자유로운 전통춤의 향유는 새로운 문화 창달의 다양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능력의 참여와 기회가 공정하게 확대되면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무용 인재의 발굴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공적 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의 데이터 설계는 시대별 춤 종목의 종합조사와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토대로 원본 데이터의 엑셀 작업을 통해 그 대상과 방향을 설정한다. 그 이후 DB화의 목적과 단계 설정 → DB화 인덱스의 항목 생성 및 데이터 구성 체계 → DB화 인덱스의 File 스키마 설계 및 가공 순으로 구성한다. 더 나아가 XML 작업의 강화 교육, 샘플링과 테스트의 주기 실행, 기존 DB의 분석, 데이터 편입의 범위와 방향의 재보완, DBMS 환경 조성자들과의 공유 및 협업, 데이터 매뉴얼 재개선의 프로세스를 통해 DB의 안정화를 위한 검수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전통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상생의 관점들이 시사되고, 이 춤들이 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적 실천의 기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한국 전통춤, 공적 보호, 데이터베이스, 공공재, 저작물

##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무용사회는 전통춤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계기로 전통무용 분야에서의 저작권 논쟁이 치열하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에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실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리와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sup>1)</sup> 특히 전통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용되어 온 전통춤의 경우는 전통과 창작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전통무용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전통춤과 관련된 저작물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권리를 가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

1) 김윤지, 「창작성의 경계로 본 무용 저작물의 재조명 연구」, 『문화와 융합』 44권 1호, 2022, 489쪽.

않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혼선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행 연구에서도 서로가 배치되는 관점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통춤에 대한 사적 보호의 한계를 시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상과 근거, 범위 설정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춤의 공적(公的)<sup>3)</sup> 영역 찾기와 설정에 의한 공적(公的)보호 체계에 주목한다. 이는 전통춤의 저작권 부여라는 사적 영역의 설정이 힘들기 때문에, 공유의 영역이자 공정 이용이 가능한 공공재로서의 전통춤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상에서도 전통문화원형과 같은 공적 영역의 경우는 제외<sup>4)</sup>

- 2) 전통춤의 공적보호 연구로 전통무용의 저작물을 조명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니 공유의 영역 및 전형적인 춤 동작에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통의 영역에서도 안무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견해(김근우, 「안무의 저작권물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9(2), 2014), 고전무용의 경우 창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계승균,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4, 2014; 이철남, 「전통문화에 대한 저작권 규범체계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54, 2019; 신민서, 「전통무용 저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8(2), 2020), 전통무용의 저작권 인정은 저작권법의 목적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김희권·이루라,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에서 촉발된 전통춤의 무용저작권 인정 논의와 저작권법의 목적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7(1), 2019), 상업성이 강하지 않은 전통공연의 안무까지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및 저작권의 외연을 강조한 견해(홍승기, 「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강원법학』 57, 2019)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공통된 점은 첫째, 전통문화와 관련된 저작권 부여에 대한 한계를 제시했고, 둘째, 전통무용 저작물의 전통 범위와 저작물 창작성의 기준 정립을 강조했지만, 셋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못했다는 것이다.
- 3)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일이나 대상을 일컫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전통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 요소 또는 표현 방식을 뜻하는 주제적 개념이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국가의, 우리의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 4) 이철남, 앞의 논문, 2019; 서재권,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설정과 보호 대상은 전통춤과 관련된 저작물의 사적 구분 경계선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경계선 설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는 한국 전통춤에서의 공적보호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 공적보호 적용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타진해 보고, 주요 배경과 근거들을 마련하여 핵심어들의 주제적 개념화를 정립한다. 두 번째는 공적보호 설정의 기준, 대상, 범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대별 춤 종목의 종합조사 및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DB화의 연구 대상과 방향을 파악한다. 마지막 DB화의 목적 및 단계에 따라 데이터 편집자로서의 해야 하는 역할을 DB화 인덱스의 항목 생성·데이터 구성 체계·File 스키마의 설계·데이터의 가공 및 감수 등의 단계<sup>5)</sup>로 설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상생의 관점들을 제공하고 이 춤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적 실천의 기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경계의 변화 검토), 『무형유산』, 12, 2022.

5) 해당 단계에서 제시되는 ‘DB화’, ‘데이터’, ‘File 스키마’, ‘인덱스’, ‘인덱스 데이터’의 주제적 개념은 ‘DB화’는 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가장 큰 집합체이며, 이 중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색인의 기능이 ‘인덱스’라고 할 수 있다. 인덱스의 항목을 생성하여 항목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는 ‘인덱스 데이터’로, 그런 인덱스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보여주는 도상이 ‘File 스키마’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DB화’, ‘인덱스 데이터’, ‘File 스키마’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데이터’라고 칭할 수 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재인용.

## II. 한국 전통춤과 공적보호

한국 전통예술의 근원적 뿌리를 탐색하다 보면, 그 뿌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으며, 인간이 살기 위한 본능적인 것에서부터 예술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원(始元)의 의식과 형태들은 역사적 흐름과 시대별 환경 속에서 거듭 진화해 왔고, 다양한 가치와 기능으로 뻗어나갔다. 그 가지들을 우리는 각종 이름으로 명명하여 예술적 양식 또는 문화적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전통예술을 비롯한 문화 및 무형적 예술과 양식들은 사람, 사회, 국가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되어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보편성 또는 보편적 가치는 매우 공공적인 본질을 담고 있다.<sup>6)</sup> 특히 단순한 몸짓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용과 변용을 거듭하며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해오면서, 오늘날 우리 곁에 존립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춤 속에는 무의미를 의미화하고, 몸짓을 작품화하고, 종합적인 것을 전문화하여 성숙시킨 수많은 예인들과 숭한 작업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다만 무형적 예술이 지닌 한계로 인해서 유형적으로 일일이 보존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전통춤은 분명 우리 고유의 조화미와 형태미를 지닌 상징 코드<sup>7)</sup>로 표상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 춤들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인 진화를 통한 완성체이며, 우리와 존립하고 있는 공공재이자 공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온 모든 춤들을 공공재의 대상으로

---

6) 김윤지, 「공공성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방향」, 『문화와융합』 42(8), 2022, 827~828쪽.  
7) 김윤지,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과 방향」, 『민족문화연구』 85, 2019, 51쪽.

보는 것은 아니다. 요약해 보면 공공재로서의 한국 전통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의 역사와 환경, 문화,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체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사실적 증거를 다루는 기록들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회와 시대를 표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전형(典型)<sup>8)</sup>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전형’라는 이 용어는 한국의 무형적 예술 또는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관점 중 하나이다. 유형문화유산의 경우는 실존하는 그 자체를 ‘원형’으로 두고, 원형의 보존을 통해서 공적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무형적 예술 및 무형적 유산은 ‘원형 보존’의 프레임으로 적용시킬 수 없는 궁극적인 특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전형 보존’의 관점으로 해당 예술과 유산의 관련 규정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전형이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 인물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본(本) 또는 본보기를 의미하지만, 전형의 전승 속에서 나타나는 진화 변용의 양상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다. 즉 무형적 예술 및 무형적 유산의 보호 관점은 원형 보존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대의 요구와 관계에 의해 수용되었던 시대별 발전의 부분들을 안고 잘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재로서의 전통춤을 선별할 것이며, 진화의 양상을 보인 해당 춤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

8) 해당 용어의 개념 제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시점은 2015년 3월 문화재 보호법 개정 시기로 추정된다. 무형문화재 지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던 ‘원형(原形)’이라는 관점이 ‘전형(典型)’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이 용어는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무형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으로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규정하고 있다.

왔던 춤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공적보호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구간만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사적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열어둔다. 그 이용의 진실까지 스스로 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또한 공적보호의 설정을 통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공공성과 그 맥을 함께 하는 공적의 특성이 역사성, 가치성,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 평등과 자유, 전유불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및 가치들이 한국 전통춤의 공적인 부분에서 발휘된다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동선으로 이끌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재로서의 한국 전통춤의 공적 대상은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 공적 질서와 공적 조화의 공동선으로 전통춤의 예술세계를 지탱해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간의 보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사의 근거들을 갈래지어 보면,

첫째, 우리는 적어도 ‘공적’의 이상적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통념에 부합되는 직관적인 우리의 것, ‘공적’은 바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 전통춤을 대하는 우리가 그 춤의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지만, 이상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려는 사회는 적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적·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순기능적 선순환을 위해서이다. 한국 전통춤에서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과 대표성을 지닌 춤들을 무형문화재라는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고 있고, 그것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세계적인 등재 시스템에 진입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는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전통춤이 지역별, 인물별, 그리고 도구별, 시기별로 다양하게 출현하게 되면서 해당 춤들이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시도 중인 경우가 많다. 하나의 춤이 다양한 춤으로 재창작 되는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표현의 기능이 또

다른 예술로 창출되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전통춤 또는 전통예술에 있어서는 그 뿌리를 명시하고, 전승 계보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지정과 관련된 난제들이 풀릴 수 있다. 전통춤 또는 전통적인 춤의 요소들을 가미하여 창출된 이 춤들의 이면에는 해당 춤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을 하여 사적인 권한과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사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가미된 사적인 부분 사이, 공유해도 되는 지점과 공유할 수 없는 지점 사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상업 영리의 권한이 부여된 대상 사이,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과 나의 것이라는 인식 사이에서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탈피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방법과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및 저작권 제도의 기능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셋째, 문화 창달의 다양성을 위해서이다.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가 지닌 공개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향유한다면 인간이 그리는 무늬(문화)의 양상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그 다양함 속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창의적이며, 보다 이로운 현상들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진화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이끌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인 능력의 공평한 참여와 발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후천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개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공적'인 것이다. 한국 전통춤이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춤의 전형 또는 공적보호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춤을 출 수도 있고, 그것을 창작의 발판으로 활용하여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한국 전통춤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수록 우수한 창작물이 탄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활동은 촉진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배경과 근거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공적보호의 설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설정은 먼저 공공재로서의 한국 전통춤인지를 타진해 보고, 그 대상을 기준으로 춤을



이루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공통된 소재(素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한국 전통춤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살기 위한 몸짓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표현 욕구를 통한 지속적인 진화를 통해 완성체로 우리와 함께 존립하고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한국 전통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의 역사, 환경, 문화,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술체로 다듬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를 다룬 기록들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회와 시대를 표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 등이 요구된다. 그 안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전형(典型)을 이 연구에서는 ‘공적’의 후보 구간으로 보며, 그 구간의 보호를 설정한다. 그 설정의 이유는 한국 전통춤의 공적 대상은 자유와 평등의 참여를 통해서 공적 질서와 공적 조화의 공동선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희망적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적인 바램뿐만 아니라 공적보호의 설정은 국가적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의 선순환 기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공적보호의 자유로운 향유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활성화되어 ‘보다 나은 문화’로 이끌게 된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공적보호 대상을 개인적인 창작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축진의 힘이 될 것이다.

### Ⅲ. 시대별 전통춤 종목의 종합조사 및 분류 체계

이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당 조사 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안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온 춤을 일컫는 가장 큰 범주의 한국춤을 대항목으로 정한다. 왜냐하면 한국춤의 분류 안에서 전통춤을 수집하고 분석할 때, 전통춤의 즐기 찾기와 분류 구분이 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조사 연구의 시대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국 전통춤의 역사, 사건, 인물, 기록, 특징들을 고려하여

선사·부족국가, 삼국시대, 통일신라 및 발해,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나누며, 춤과 관련된 모든 유물, 문헌 및 기타 참고자료들을 망라하여 춤의 작품명을 찾아낸다.

### I. 근대 이전 전통춤의 종합적 조사 (선사시대-조선시대)

시대별에 의한 철저한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 시대적 선후관계는 문헌 및 도상 자료에 근거하여 서사된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근대 이전의 전통춤 종목을 조사한다.

#### [조사 대상 목록]

- ㉠ 선사시대 - 한국춤(정병호著), 고대한국무용사연구(이병옥著), 한국민속무용연구(김 경著), 한국무용사(김매자著), 한국음악통사(송방송著) 등의 대표 서적들에서 관련 자료 및 검증 외
- ㉡ 삼국시대 -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악지樂止, 백제무악百濟舞樂 등
- ㉢ 통일신라 - 최치원의 향악잡영鄉樂雜詠 등
- ㉣ 고려시대 - 『고려사』악지樂志 및 이색『목은시고牧隱詩藁』, 산대잡극 내용 및 그림 등
- ㉤ 조선시대 - 악학궤범樂學軌範 및 전문예기집단‘사당패’관련 자료, 정재무도홀기무才舞圖笏記, 각 종 의궤, 동경잡기東京雜記, 한양세기漢陽歲時記, 동국세기東國歲時記, 읍지邑誌, 교방가요敎坊歌謠, 『국역성소부부고III』, 김홍도·김준산·신윤복 등의 그림

### II. 근대 전통춤에 대한 종합적 조사 (개화기-1945년대)

해당 춤과 관련된 국가 주도의 조사 및 공연 내용, 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대 출판된 관련 자료들까지 참고함으로써, 근대 전통춤의 상황과 그들의 인식관점까지 도출해본다.

#### [조사 대상 목록]

- ㉠ 조선총독부 한국관습조사자료 『풍속조사』(1906년-1938년), 제18장 가곡무舞音樂, 제19장 오락 및 유희, 제24장 연중행사 목록

- ㉠ 이왕직 아악부 이습희 (1910년-1945)의 활동과 내용(매월1회 135회 공연 악곡 및 연주 형태, 연주자 분석)
- ㉡ 다동조합 · 광고조합 · 경화조합 · 한남 조합의 활동과 내용
- ㉢ 조선 민요 조사 보고서 (1926년-1939년)
- ㉣ 향토무용민요관계철 (1935년) 등
- ㉤ 1910년 추정 이계향 홀기
-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기록물
- ㉦ 1930년 기생엽서
- ㉧ 해당시대의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의일보

### III. 근대 이후 전통춤에 대한 종합적 조사 (1945년대-현재)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전통춤과 관련된 공공사업, 공적 지원, 주요 인물 및 춤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예상되는 연구조사 대상 목록]

- ㉠ 1951년 국립국악원의 전통춤 활동 및 내용 등
- ㉡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행사 및 각종 문서, 수상 내용, 무형문화재 지정과의 관계, 심사내용 등
- ㉢ 1950년-현재,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
- ㉣ 1958년 한국예술사절단의 전통춤 공연의 활동 및 내용, 지원 규모, 비평자료 등
- ㉤ 1960년대-현재, 무형문화재 종목별 법제화의 과정과 지정 정보, 내용, 기준, 조사자 정보 등
- ㉥ 1970년대-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전통춤 공연의 현황, 출연진, 지원 배경 등
- ㉦ 1970년대-현재 시도무형문화재 전통춤 지정의 정보, 기준, 내용 등
- ㉧ 전통춤의 종합조사에서 도출된 전통춤에서 무형문화재 비지정의 종목을 찾아내어, 현재의 전승 변모, 전승기반을 파악한 후 공적 보호의 대상 여부를 타진해봄.
- ㉨ 1994년-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공연 목록 및 정보 등

### IV. 한국 전통춤과 관련된 저서 및 사전류

위의 기록물들을 확인하거나 추가 검열하기 위해서 역사책과 관련된 저서들을

함께 살펴본다.

[조사 대상 목록]

| 제목          | 저서명         | 발행처      | 발행 연도 |
|-------------|-------------|----------|-------|
| 『한국의 무용』    | 성경린         | 세종대왕기념사업 | 1976  |
| 『韓國舞踊史』     | 송수남         | 금광       | 1988  |
| 『韓國民俗舞踊研究』  | 김은경         | 형설출판사    | 1991  |
| 『韓國의 民俗춤』   | 정병호         | 삼성출판사    | 1991  |
| 『한국의 춤』     | 김매자         | 대원사      | 1994  |
| 『한국 전통춤 연구』 | 성기숙         | 현대미술사    | 1999  |
| 『한국무용사의 이해』 | 김혜진·이명진     | 형설출판사    | 2003  |
| 『한국춤 연구』    | 이미영         | 민속원      | 2009  |
| 『한국무용민속학』   | 이병옥         | 노리       | 2009  |
| 『한국춤의 전개양상』 | 송방송·조규익·성기숙 | 보고사      | 2013  |
| 『한국춤통사』     | 김영희 외4      | 보고사      | 2014  |

[표1] 시대별 전통춤 종목의 조사 대상목록<sup>9)</sup>

전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중복되거나, 잘못 기입한 종목명 등은 필터링을 다시 하며, 이때에는 당대 기록물 또는 관련 저서의 출처 자료 등에서 기록된 작품명 만을 기준으로 재정리한다. 다만 춤의 행위자가 직접 밝힌 춤의 작품과 정보는 포함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춤의 작품명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이때의 분류 시점과 체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분류의 카테고리를 생성하며, 분류명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국의 춤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한다. 본 연구의 분류 설정은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인지(행위자), 그 춤을 누가 향유(향유자)하고 있는지,

9) 해당 조사 자료들은 본 연구의 참고문헌이기도 하다. 다만 지면 할애의 한계로 인해서 뒤쪽 참고문헌의 목록에는 제외된다.

춤을 추는 공간은 어디인지(공간), 왜 춤을 추는지(목적), 어떤 춤을 추는지(요소) 등에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춤을 전통춤(궁중춤, 교방춤, 민속춤)과 신무용(외래 신무용, 재래 신무용), 전통 근대춤, 전통 재창작, 한국창작춤으로 나눌 수 있다.

춤은 순수한 우리말이며, 우리글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 전통사회에서는 ‘무舞’로 표현되었으며, 이런 춤들을 전통춤이라고 하고 근대를 기점으로 뿔 ‘용踊’이 들어오면서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적인 모든 춤을 ‘한국의 춤’, ‘한국춤’, ‘우리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장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국춤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안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온 춤을 일컫는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범주와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 그 안에서 학술성과 역사성, 예술성과 대표성 등을 지닌 춤을 보통 ‘전통춤’ 또는 ‘고전무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통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립하고 있어 이를 다시 춤의 행위자, 향유자, 그리고 목적과 공간 등에 따라 ‘궁중춤’, ‘교방춤’, ‘민속춤’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sup>10)</sup> 전통춤으로서 궁중춤은 1급 관기(宦妓 관청에 속한 기생)들이 추는 춤으로, 국왕의 안녕과 만수무강 또는 국가 발전을 기원하며 왕과 신하·국빈들이 향유하는 궁전 안의 공간 및 국가 행사장에서 추었던 춤이다. 다음으로 교방춤의 ‘교방(敎坊)’은 지방관아의 부속 건물로 ‘가歌·무舞·악樂’ 등의 각종 기예를 관기 또는 향기(鄕妓 지방 기생)들에게 교습하는 곳이다. 교방에서 사객연(使客宴 중국 및 일본의 사신들이 머무는 곳에서 펼쳐지는 연회) 및 국연(國演 국가의 주요 연회)에 동원할 관기를 충원하기 위해 춤을 교육시키거나 연회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때 추었던 춤을 ‘교방춤’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민속춤은 세시풍속, 민속놀이 등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춤으로 세시에 재인(才人, 무당, 중 또는 민중이 추는 춤이다. 민속춤은 향유하는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 김윤지, 「K-dance의 정체성 탐구과 세방화」, 『한국무용연구학』 40(2), 2022, 21~22쪽.

행위자가 향유자가 되고 향유자가 행위자가 되기도 하며, 세시와 관련된 곳이라면 들과 산과 밭과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에서 열리는 함께 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여기에 전문 무용인들의 작업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이 춤은 시대적 발전과 함께 전문 예술로서의 작품화, 즉 ‘보여주는 단독 춤’<sup>12)</sup>으로 추어지고 있다. ‘모든 판에서 열리는 함께 하는 춤’(탈춤, 농악, 굿, 놀이, 의례 등)의 경우, ‘가·무·악’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 정도의 춤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보여주는 단독 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용인 ‘신新무용’이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게 되는데, 이 춤을 본 연구에서는 외래 신무용으로 분류해 보며, 자체적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춤의 요소들을 동시대적 인물, 환경, 기술 등과 접목한 한국적인 신무용을 재래 신무용으로 구분하여, 신무용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여러 혼선 및 오늘날 전통춤과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 근대 이후 외래 신무용은 그 전승의 양상이 희박해졌지만, 재래(전통적, 향토적, 한국적) 신무용은 오랫동안 여러 무용인들에 의해 작품화되고 독립화와 전문화를 거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시대로부터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이 춤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종목 지정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즉 근대의 계통을 이룬 재래신무용은 오늘날 전통춤의 의미와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차후 지정의 유력한 대상군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춤들을 두고, 무용학 또는 무용사회에서는 ‘신무용’과 ‘전통재창작’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는 해당 춤들의 위치, 기능, 의미, 방향들

11) 김윤지, 앞의 논문, 2022, 22쪽.

12) 김윤지,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을 위한 민속무용의 유형분류 연구」, 『한국사전학』 24, 2021, 51쪽.

을 고려한 적합한 분류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런 춤들을 ‘전통 근대춤’으로 제안해 본다. 해당 춤은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온 춤의 요소들을 근대적인 요소들과 조화시켜서 전통적인 근대 춤의 계통을 이루며 전승되어온 춤으로 개념화하고, 전통춤의 공적보호 대상 분류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전통춤과 전통 근대춤에서의 요소들을 재창작한 춤을 전통재창작으로 분류하며, 일련의 모든 한국춤의 요소들을 착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한국 창작춤으로 정보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도식1]



도식 출처 : 본 연구자 제작

[도식1] 시대별 한국춤의 분류 체계

위 도식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1절의 시대별 춤 종목들을 엑셀로 작업한다. 특히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와 현재의 춤 작품 조사는 더욱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진다. 근세의 춤과 관련된 자료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시대는 전통문화유산 및 전통춤이라고

의식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역사성이 확보된 시기이다. 근대 또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춤인 신무용이 출현함으로써 한국 전통춤 전승의 지형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가 현대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해본다.[표2][표3][표4]

먼저 근대 이전의 종합조사는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분류화한 엑셀 작업이다.[표2] 해당 시대는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통사회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 전통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춤 장르 간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춤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이라는 진화의 과정이 포착되었으며, 오늘날 전통춤의 모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춤의 기록 또한 그 이전의 전통적 시대보다 더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다.







[표 3] 시대별 춤의 작품명 및 분류화(근대)\_20230205 조사기준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춤 조사는 그 대상과 범위가 시기별로 편차를 보인다. 특히 1945년 해방 이후 전통문화유산은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임과 아울러 국가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1950년 6.25 동란 등의 시대적 환란 속에서 해당 시대의 전통적인 춤 문화들은 점차 소멸되어가는 위기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시대의 춤 조사는 주로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국가 기록물, 문화예술위원회 도감, 문화재청 자료, 관련 저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궁중춤, 민속춤, 교방춤, 전통 근대춤으로 갈래지어 작업한다. 다만 현재에도 전통적인 춤들이 개별적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 부분들은 제외될 수 있다.



사라지는 춤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승되면서 진화되어온 공공재로서의 전통춤이 될 만한 대상들<sup>13)</sup>도 많았다.

둘째, 통상적으로 제시되어왔던 전통춤의 작품 외에도 새롭게 발견된 춤도 있었으며, 위 엑셀 작업에서는 붉은색으로 표기했다. 예를 들면 『고려사』 권4, 세가4가 현종 즉위년 2월의 기록에서 제시된 왕모대가무(王母大隊舞) 또는 왕모대무라는 궁중춤이 있었으며, 고려 문종 27(1073년) 2월에 펼쳐진 연등회에서 교방의 여제자들이 춘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의 기록이 『고려사』 권71(「악지」)에 전해진다. 조선후기 성천교방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천지(1603년)에서는 무동(舞童), 여무(女舞), 능파무(凌波舞), 선관무(仙冠舞)의 춤이, 전라도읍지 1752년, ‘용성지’, <교방신증>에서는 쟁공무(鐙工舞)가 등장하는데, 이 춤과 유사한 춤이 황해도 교방의 연희를 기록한 심전고(1828년) 권1, 연계기정에서 <쟁강무>로 기록된다. 또한 정주읍지(1899년)에서는 적용(賊容)이 교방에서 연희되었는데, 한자 풀이로만 본다면 이 춤은 신라 때부터 전해져 오는 궁중의 처용무와 유사하다. 근대에는 궁중춤인 어부사, 재래신무용인 이화무(梨花舞), 지구무(矢射舞), 전기광무(電氣光舞), 서민안락무, 팔선여무(八仙女舞), 문명축하무(文明祝賀舞), 육일승천무, 풍국룡화무, 배립무(排立舞), 관기남무(官妓男舞), 나뉘춤, 팔쪽장삼춤, 서울무당춤, 단가무 등의 생소한 춤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외래적인 신무용의 작품들 또한 대거 출현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해당 작품들을 찾아볼

13) 예를 들면 북춤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고 또는 고무와 관련된 작품들이 시대별로 나타났다. 위의 엑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나누어 초록색으로 구분했다.  
 선사시대·부족국가\_영고(迎鼓) → 고려시대\_궁중춤 : 무고(舞鼓), 동동(動動) → 조선시대\_궁중춤 : 무고(舞鼓), 교방춤 : 고무(鼓舞), 무수(舞袖), 고고무(叩鼓舞)  
 민속춤 : 법고(法鼓), 사고악(社鼓樂), 촌적장고(村簾杖鼓) → 근대\_궁중춤 : 무고(舞鼓), 재래신무용 : 북춤, 사고무(四鼓舞), 교방춤 : 고무(鼓舞) → 현대\_ 궁중춤 : 무고(舞鼓) 교방춤 : 진주고무 민속춤 : 법고춤, 승전무, 전통 근대춤 : 장고무, 구고무, 진도북춤, 동래고무, 삼고무, 오고무 등.

수가 없었다. 근대에 연희되었던 전통춤과 전통적인 요소들을 작품화한 재래 신무용들은 현대에 와서는 지역별, 인물별, 도구별, 과장별로 파생되어서 작품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 IV. 종합조사 DB화의 단계 및 인덱스 데이터의 설계

### 1. DB화의 목적과 단계 설정

한국 전통춤의 공적 보호 대상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모든 춤들을 수집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며, 현시점에서 해당 춤들의 양상과 특징에 따라 분류해서 시대별로 꾸준히 나타나는 공통된 춤들을 본 연구의 전장에서 도출했다. 그 대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공공재로서의 전통춤이 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 춤을 이루는 공통 요소들을 밝혀내야 한다. 일련의 연구들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적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화가 필요하다. 물론 전통춤에 대한 이러한 작업들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웹과 앱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다만 반영되는 구조 및 분류에서의 일관성이 적용되지 못한 상태이며, 텍스트의 내용들 또한 요약하거나 부정확한 편이다. 연동되는 동일 부처간의 데이터 역시 일괄적이지 못하고 차이를 보인다.<sup>14)</sup>

따라서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화의 설계 목적은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통춤 및 전통적인 춤의 양상들을 담을 수 있는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시대별로 정리하고, 공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춤들을 아카이빙(archiving)해서 유기적인 디지털 데이터화를 확보하

---

1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김윤지,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와 지향점-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2, 2021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는데 있다. 그리고 해당 DB화의 구성과 단계 과정을 3단계로 설정해 본다. 1단계는 한국 전통춤의 공적 보호 설정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된 전체 데이터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은 저장 보호 장치를 둔다. 2단계는 전체 데이터 정리 및 분석(필터링, 서버 세팅)이다.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만을 필터링하고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있다면 더 진행하다가 각 항목 간 중복 및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수정하고 정리한다.<sup>15)</sup> 특히 이 단계에서는 필터링이 된 데이터의 구성과 계층 관계들을 고려하여 시소러스하고 인덱스 항목을 생성하여 아카이브 및 스키마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 및 분석, 인덱스 항목의 기획 단계가 완료되면 DB화를 위한 서버 환경들을 공학자들과 의논하여 조성한다.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의 자료들을 전산자료 등으로 가공하고 적용시킨다.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단계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의 인덱스 항목 도출</li> <li>■ 인덱스 항목의 데이터 구성</li> <li>■ 인덱스 항목의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현장조사</li> <li>- 시정각 자료 조사 등</li> </ul> </li> <li>■ 데이터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엑셀작업</li> <li>- 동영상 및 사진</li> </ul> </li> <li>■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안 및 전체 그림 설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필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한 데이터 중 유의미한 데이터 필터링</li> </ul> </li> <li>■ 데이터 해석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별 자료의 해석</li> <li>- 형상의 코드 해석</li> <li>- 의미론 정립</li> </ul> </li> <li>■ 데이터 재성리 및 비교분석</li> <li>■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보안</li> <li>■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le 스키마 구조</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보강 및 전산 자료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최종 가공</li> <li>■ 데이터베이스 세팅</li> <li>■ 메타 아카이브 구축</li> <li>■ File 스키마 구조</li> <li>■ 데이터베이스 최종설계</li> <li>■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li> </ul> |
| 데이터량   | XML 파일<br>이미지<br>동영상/음원<br>(최종 산출물의 1.5배 수집)  | XML 파일<br>이미지<br>동영상/음원<br>(필터링 및 추가 수집)  | XML 파일<br>이미지<br>동영상/음원<br>(데이터 보강 및 최종 가공)  |

도식 출처 : 신지영(2016,19쪽), 김윤지(2020,50쪽) 참고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도식2] 한국 전통춤의 공적 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 단계별 계획 내 데이터 편집자의 역할들

15) 김윤지, 「춤으로 본 진주교방의 재해석과 DB모델안」, 『교방문화연구』 2(2), 2022, 50쪽.

이 같은 DB의 전체 구상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및 운영체제, 그리고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의 환경 조성은 컴퓨터 공학 및 정보 처리 연구자들의 역할이며, 본 연구자는 전체 데이터의 편집자로서 DB화 인덱스의 항목 생성·데이터 구성 체계·File 스키마의 설계·데이터의 가공 및 감수 등의 단계를 설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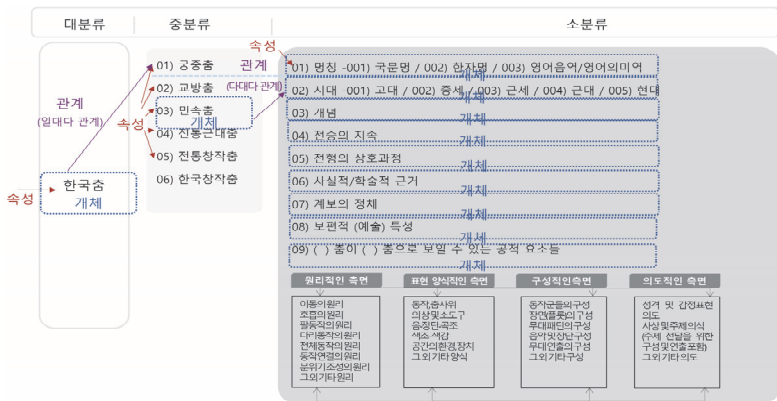
## 2. DB화 인덱스의 항목 생성 및 데이터 구성 체계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춤 종목의 조사와 분류 작업을 토대로 한국 전통의 역사·환경·문화·인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예술체로 다듬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록물이 있고, 해당 사회와 시대의 표상이 되어 존립하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전통춤을 도출했다. 그것은 DB 데이터의 인덱스 항목이 되며, DB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DB화를 위한 인덱스의 전체 항목을 아래와 같이 생성할 수 있다.[도식3]





무당춤, 부채춤, 장구춤, 태평무, 한량무, 화관무 등의 전통 근대춤으로 도출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대상들이 공적 보호 DB화의 인덱스의 항목이자, 데이터의 목록이며, 전 장에서 논의되었던 공적 보호의 대상, 근거, 범위, 요소들을 DB 데이터의 구성 요소인 개체, 속성, 관계 등의 사항으로 개발하여 설계해 본다.[도식4]



도식 출처 : 본 연구자 제작

[도식4]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 인덱스의 데이터 구성 체계

데이터의 구성요소는 크게 개체, 속성,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도식의 개체(Entity)는 DB에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이다. 파일 시스템의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 [도식4]에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구성 항목들이 개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속성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되며, 같은 유형의 개체를 구성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체와 속성의 연결을 관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대일(예시 개체 집합 대항목 '한국춤'의 원소가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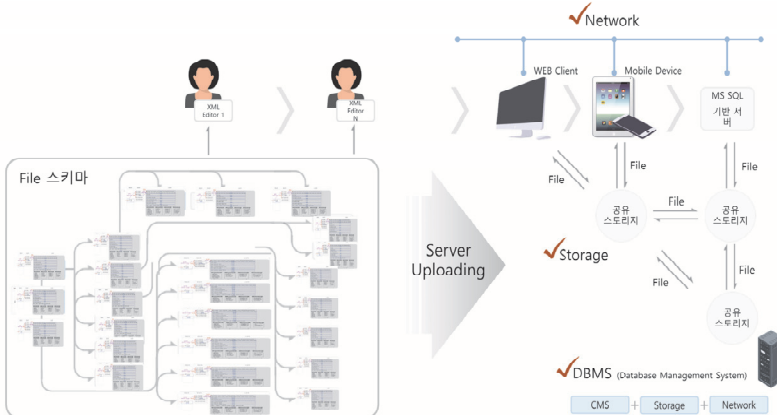
집합 중분류 ‘궁중춤’ 개체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 일대다(예시 : 개체 집합 중분류 ‘궁중춤’의 각 작품명이 개체 집합 하분류 속성들과 대응하는 관계, 다만 하분류 개체가 중분류 ‘궁중춤’ 작품명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 다대다 (개체 집합 중분류 ‘궁중춤’의 각 작품명은 개체 집합 하분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고, 개체 집합 하분류 각 원소도 개체 집합 중분류 ‘궁중춤’의 작품명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는 관계이다.

### 3. DB화 인덱스의 File 스키마 설계 및 가공

해당 단계는 DB화 구축의 환경을 조성하고, 스키마 설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또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파악하고 DB 분류 체계를 위한 방법론을 공학자들과 서로 의논해야 한다. 그 방법론에 따라서 참여 공학자들은 DB 테이블 및 쿼리 동작, 데이터 구조 분석, 색인 검색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Testbed에서 샘플 데이터를 통한 DB 설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위의 DB 설계 및 쿼리 검색 기법 등을 연구하고 DB 서버를 구축한다. 이후 메타 데이터의 구축을 시도해 보고, DB 서버의 안정화를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웹 디자인 및 응급 복구 완화까지 가능한지 살핀다.<sup>16)</sup>

---

16) 도원영, 신상현, 최경봉,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구축 방안 연구」, 『민족문화연구』 (75), 9~13쪽, 2017.



도식 출처 : 신지영(2016,41쪽), 김윤지(2022, 53쪽)참고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도식5]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 인덱스의  
데이터 설계 및 진행

DB화 인덱스의 데이터는 XML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다. 이것은 확장성 생성 언어(擴張性生成言語)로 번역되며,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였다. HTML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서 추가할 내용을 작성,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다. 특히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는<sup>17)</sup> 강점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XML을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먼저 공적보호를 위한 종합조사의 결과부터 엑셀로 작업해 둔 것이다 [표2][표3][표4]. 이는 변환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작업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17) 김일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영상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8(2), 2002, 11쪽; 박정원, 「중국문화교육을 위한 E-BOOK 콘텐츠 제작론」, 『중국연구』 (36), 2005, 119쪽.

수도 있고, 통계까지 가능해서 데이터의 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그 다음에 전 절의 [도식 4] 한국 전통춤의 공적 보호를 위한 종합조사 DB 인덱스의 데이터 구성 체계의 필드 내용을 기록한다. 이렇게 작업한 것들은 XML로 변환시키면 DB 아카이브 또는 DB File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DB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B에 대한 지속적인 검수 작업을 통해 DB의 완전성과 균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향후 관리 및 자료 자체의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다.<sup>19)</sup> 본고에서는 DB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요소, 텍스트, 자료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XML 작업의 강화 교육 → 샘플링과 테스트의 주기 실행 → 기존 DB의 분석 → 데이터 편집의 범위와 방향의 재보완 → DBMS 환경 조성자(공학자)들과의 공유 및 협업 → 데이터 매뉴얼 재개선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DB의 안정화를 위한 검수를 계속적으로 도모한다.

#### IV. 나가며

한국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온 문화유산들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 상황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춤의 공적 영역 찾기와 설정에 의한 공적보호 체계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 설정 타당성을 확보하여, 핵심어의 개념화를 제안한다. 먼저 한국 전통춤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단순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용과 변용을 거듭하며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

18) 정재훈, 「실크로드 문화지도DB 구축 시론」, 『중양아시아연구』 23(2), 2018, 9~10쪽.

19) 정재훈, 위의 논문, 2018; 김윤지, 앞의 논문, 2022.

거듭해왔다. 오늘날 우리 곁에서 존립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춤 속에는 무의미를 의미화하고, 몸짓을 작품화하고, 종합적인 것을 전문화로 진화시킨 수많은 예인들과 숭한 작업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 결과 전통춤은 이제 완성도 높은 우리의 표상이며, 공공재로서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한국 전통춤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의 지속, 전형의 상호과정, 사실적·학술적 근거, 계보의 정체, 보편적 예술 특성들이 요구된다. 그 춤들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전형을 공적의 후보 구간으로 보며, 그 구간의 보호를 설정한다.

둘째, 공적보호 설정의 3가지 근거를 제안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도모한다. ①한국 전통춤 공적의 이상적 목표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전통춤의 공적인 부분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적 질서와 공적 조화의 공동선으로 이끌 때, 우리는 희망적인 무용사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국가적 사회적 인식과 제도 등의 순기능적 선순환을 위해서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유사한 부분과 저작물로서의 개인적 부분 사이,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과 나의 것이라는 사이 등에서 공적보호 설정은 경계선이 되어줄 것이다. ③문화 창달의 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가 지닌 공개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춤을 향유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양상이 창출되고, 그 속에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④개인 능력의 공평 참여와 발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한국 전통춤의 공적보호를 누구나 향유하게 된다면, 해당 춤이 지닌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인지할 수도 있으며, 공적보호 대상을 창작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면, 우수한 창작물이 탄생될 확률이 제고될 것이다.

셋째, 이런 전제와 근거를 통해서 공적 보호를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시대별 춤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토대로 '설명 - 기록양상 - 분류-공간-장소-목적-출처-최초 출현시기- 증거자료 - 춤문화원형-비교' 순서의 엑셀 시트를 작성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종합조사DB의

연구 대상과 방향을 파악한다.

넷째, DB화의 목적 및 단계에 따라 데이터 편집자로서의 해야 하는 역할을 DB화 인덱스의 항목 생성·데이터 구성 체계·File 스키마의 설계·데이터의 가공 및 감수 등으로 설계한다. 종합조사의 원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적 보호의 적용 대상·근거·범위들을 DB 데이터의 구성 요소인 개체, 속성, 관계 등의 사항으로 개발하여 조직한다. 이러한 개별적인 인덱스 데이터의 File 스키마를 설계하고 데이터 가공을 해보면서 전산 자료를 준비한다. 더 나아가 XML 작업의 강화 교육 → 샘플링과 테스트의 주기 실행 → 기존 DB의 분석 → 데이터 편집의 범위와 방향의 재보완 → DBMS 환경 조성자(공학자)들과의 공유 및 협업→데이터 매뉴얼의 재개선의 프로세스를 통해 DB의 안정화를 위한 검수를 도모한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전통춤을 공공재적인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으며, 해당 춤이 해당 춤으로 보이는 공통된 요소들은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공적 질서와 공적 조화의 공동선을 이루는 미래 실천의 기본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계승균,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4, 2014.
- 김근우, 「안무의 저작권물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9(2), 2014.
- 김윤지, 「춤으로 본 진주교방의 재해석과 DB모델안」, 『교방문화연구』 2(2), 2022.
- \_\_\_\_\_, 「창작성의 경계로 본 무용 저작물의 재조명 연구」, 『문화와 융합』 44(1), 2022.
- \_\_\_\_\_,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와 지향점-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1), 2021.
- \_\_\_\_\_, 「공공성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방향」, 『문화와융합』 42(8), 2020.
- \_\_\_\_\_, 「한국춤의 정체성으로 본 BTS성공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사회』 5(2), 2020.
- \_\_\_\_\_, 「인류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융합』 38(3), 2016.
- \_\_\_\_\_,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을 위한 민속무용의 유형분류연구」, 『한국사전학』 24, 2014.
- 김일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영상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8(2), 2002.
- 김희권 · 이루라,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에서 촉발된 전통춤의 무용저작권 인정 논의와 저작권법의 목적과의 관계」,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7(1), 2019.
- 도원영 · 신상현 · 최경봉, 「사전 편찬 정보 통합 DB구축 방안 연구」, 『민족문화연구』 75, 2017.
- 박정원, 「중국문화교육을 위한 E-BOOK 콘텐츠 제작론」, 『중국연구』 36, 2005.
- 서재권,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경계의 변화 검토」, 『무형유산』 12, 2022.
- 손병식, 「공적주의(功績主義) 정의론과 최선의 국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온 개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67, 2012.



- 송 준, 「無形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대한 小考: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2008.
- 신민서, 「전통무용 저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8(2), 2020.
- 신지영, 『근대 동아시아 신체언어 DB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센터, 2016.
- 정재훈, 「실크로드 문화지도DB 구축 시론」, 『중앙아시아연구』 23(2), 2018.
- 존 톨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주해중 · 방상원 · 이상필, 『데이터베이스 총론』, 정일, 1999.
- 이철남, 「전통문화에 대한 저작권 규범체계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54, 2019.
- 홍승기, 「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강원법학』 57, 2019.

---

A STUDY ON DATA DESIGN OF COMPREHENSIVE  
RESEARCH DATABASE FOR THE PUBLIC PRESERV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KIM YUNJI (KIM, YUN JI)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how the modern public can fairly and equally benefit from the public and private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proposes the following main points by focusing on the system of public preservation as solutions by locating and defining the public domai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First, Korean traditional dance is a public asset that accompanies us today as a result of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repeated acceptance and innovation in Korea as a spatial background, and thus is a high-quality representation of our culture as it has encompassed the dedication and craftsmanship of numerous artists over time.

Second, the public preserv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facilitates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the 'public' common good, initiates the virtual cycle betwee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and social re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se dances, and enhances the ability to create new cultures as these dances are openly enjoyed through public preservation. In particular, the cultivation of new talents with

potential and ability is actively promoted as the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of individuals are equitably distributed.

Third, the data design of the comprehensive survey DB for public protection first sets its target and direction through Excel work of the original data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 of dance events by era and a new classification system. After that, It consists of the purpose and step setting of the DB → item creation and data composition system of the DB index → File schema design and processing of the DB index.

This model is expected to shed light on the perspective of co-prosperity to reinvent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lay the foundation for productive practice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these dances.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Dance, Public Preservation, Data Base, Public goods, literary work.